

의료인력 증원 문제 해결, 국민 위한 진정성 담아야

의정단상



박원중
전남도의원

최근 의료인력 증원 및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약 50여 분간 진행된 담화는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근거와 당위성,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한 세부 설명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의료인력 증원과 관련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도모하고자 정부 나름대로 준비했을 담화문 발표는 안타깝게도 국민과 의료계의 동의는 끌어내지 못하였으며, 이 담화로 인해 의료인력 증원과 관련, 타협의 여지 없이 오히려 의정 간 골만 더욱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도 다수 존재한다.

불통 정부를 향한 혹평 또한 각계각층에서 쏟아졌다. 같은 날 오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2천 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며, 의료인력 증원 규모를 포함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향적 발언으로 황급히 사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정 간 대치가 장기화되며 국민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내 시군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경우 부족한 의료 여건 속에서 그마저 버텨오던 ‘기초 진료권’마저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놓여온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차출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골 사람들은 아픈 게 죄요’라는 지역 어르신들의 절규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전라남도의 경우 2023년 배치 공보의 수는 267명이다. 그러나 의료대란 이후

보건복지부의 진료 차질 해소 방침에 따라 현재 전남 내 전체 공보의의 무려 16.8%인 45명의 공보의가 다른 지역에 파견됐다.

도서 지역이나 오지, 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나 지소에서는 공보의를 차출하지 않고 공석이 된 보건기관에 대해 순회 진료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초 진료권의 붕괴는 볼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혹자는 이를 아랫돌 빼 위돌 끼기라고 말할 정도이다. 가뜰이나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일어난 출구 없는 위기가자, 의료 재난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지난 4월 1일부터 의대 교수들은 주 52시간, 개원의들은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 단축에 들어갔다. 장시간 근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근무시간 단축으로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갖추겠다는 명분이나,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것은 법정 근무시간 근무를 통해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의료계는 개원의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기에 국민에게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작금의 이 혼란 속에서 의료 중단과 더불어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불안감까지 가중된 상황이다.

최근 익수사고로 사망한 생후 33개월의 여아는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하기까지 무려 2시간 51분 동안 다른 상급 병원 9곳에서 전원 요청을 거부당했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에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가 벌어진 것이다. 전원 거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련의 상황들이 이 사망에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정간의 대립은 지속되며 깊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도, 지금 문제에 대한 출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초심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진심은 과연 옳은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담화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에게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의료 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게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타협리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화의 여지를 남겨 두었으니 조속히 갈등을 수습하고 의료 개혁의 완수에 동참해 달라라는 뜻을 의협에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화의 여지를 보인 만큼 의협에서도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국민 생명권 수호를 위한 책임감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물론 양측간의 대화 시도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국민의 불안감과 농어촌 의료현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응급상황에 적시 대처가 가능한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이 인력들이 지역 유출 없이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농촌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한 치양보 없는 이 험겨투기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는 사실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의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국민을 위한 ‘온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기본권’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 정부와 의협 모두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정을 협의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더불어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이 마지막에는 지방의 의료 인프라 혁신이라는 성공적 결과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한다.

社說

영산강 가치 높이는 ‘수질개선’ 선결돼야

광주 1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영산강 수질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광주시가 서구 유덕동 제1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오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5년마다 시행한다. 하수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와 유지관리 등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5개년 계획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기술진단을 통해 제1하수처리장 공정 효율화와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 2021~2022년 제1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된 악취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번 기술진단의 초점도 ‘수질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앞서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영산강 수질 악화의 주원인을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로 꼽았다. 실제로 영산강의 발원지인 담

양의 경우 1급수를 유지하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광주시를 지나면서 4급수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은 생태의 보고이며, 마한, 도자 등 광주·전남에 고대문명을 싹틔웠다. 특히 농도 전남의 농업용수로 아낌없이 쓰인다. 2년 전 최악의 가뭄에 영산강물을 식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됐고, 민선 8기 광주시는 ‘꿀잼도시’를 만들기 위해 Y프로젝트(영산강과 황룡강의 ‘Y’자 형태)도 추진 중이다. 영산강이 살아야 광주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영산강은 새로운 1000년을 열어갈 생명수다. 광주시가 영산강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이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 시대 이후 단체장들의 역점사업으로 인해 광주 제1하수처리장 현대화는 늘 후순위였다가 평가다. 영산강이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지스트 홀딩스 설립, 기술혁신 기대한다

지역 위해 지자체 협업해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지스트기술주 주식회사(지스트 홀딩스)’를 발족시켰다는 소식이다. 4일에는 초대 대표로 여주상 전 마젤란기술투자 대표를 선임했다.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 벤처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역과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스트 홀딩스의 활약을 기대한다.

지스트 홀딩스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50개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총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하는 것이다.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출자회사 설립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품개발과 상용화, 기술마케팅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도 적극 펼치겠다는 게 지스트 홀딩스의 각오다. 투자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대형 기획창업을 추진하고 투자펀드 결성과 운영을 통한 투자 지원 등도 첨단기술산업의 불모지인 지

역으로서는 단비와 같은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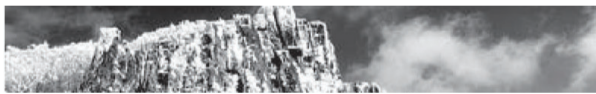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전체 면적이 2만 2000㎢로 전라도 크기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12명이나 배출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해외 기업도 80개가 넘는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시대, 개선을 넘는 혁신으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패를 맛보는 것도 첨단산업의 세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환경과 건강, 교육 등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다. 첨단과학기술은 하루 아침에 탄생할 수 없고, GIST의 힘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창업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 이들의 노력을 응원해 주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혁신하는 자유’를 꿈꾸는 GIST와 지스트 홀딩스의 노력이 광주와 전남을 혁신의 메카로 키워 내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서석대



“유튜브는 기적이었다.” 지난 2006년 8월, 뉴욕타임스가 무명의 한국인 기타리스트 임정현씨를 소개했다. 출중한 재능은 커녕 열정마저 없었던 평범한 청년 임정현. 뉴질랜드 유학 중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겠다’며 귀국한 그는 22살이 되던 어느 날 제리 창이 캐논 번주곡을 기타로 연주하며 유튜브에 동영상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가 올린 동영상은 10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뉴욕의 무대를 거치며 그는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유튜브의 기적이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다’는 게임씨의 회상이다.

유튜브는 온라인 결제 사이트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스티브 채와 채드 헐리가 만든 플랫폼이다.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려 했던 두 사람. 엑티브X와 익스플로러 등 당시 프로그램의 한계로 실패를 거듭하던 그들은 플래시를 이용해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2005년 ‘유튜브닷컴’을 창업했다. 이후 유튜브는 오픈 며칠만에 하루 페이지뷰가 1억 회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구글에 16억 5000만 달러에 인수됐다. ‘인터넷 진화의 다음 단계’라는 게 구글이 유튜브를 매입한 이유였다.

유튜브의 성공 이유는 동영상을 만드는 데 복잡한 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뉴스부터 유머나 게임, 요리, 뷰티, 일상 등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주제의 영상을 직접 창작해 누구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도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춘 전세계 수천 명의 유튜버가 유튜브 활동만으로 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유튜브를 두고 타임은 ‘웹이 평범한 대중을 언론인으로 만들었다면 유튜브는 일반인을 유명인사로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유튜브의 폐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뉴스의 생명인 객관성과 정확성을 외면하고, 사회 곳곳에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뉴스의 가치도 훼손시키고 있다. 중도층이 사라지고 극우와 극좌만 남은 정치적 획일성,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진영 논리도 감당할 수 없는 확장판으로 이어져 사회를 분열로 내몰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극언을 내뱉는 정치인들을 당당하게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것도 유튜브의 맹점이다. 한때는 기적으로 불렀던 유튜브. 그 세계적 플랫폼이 대한민족에서 사회를 극단화시키고, 편향되게 만드는 ‘팬덤의 유튜브’로 전락하고 있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